

“건강특별시,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 합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우)0256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421호) / 전화(02)960-0811 / 전송(02)960-0813 / E-mail: seouloma@naver.com
사무처장: 김석모 국장: 김태준 부장: 김윤기, 윤상환 과장: 김승기 담당: 윤덕영 / 홈페이지: www.soma.or.kr

문서번호 서한의 제 242 호

시행일자 2017. 10. 10. (년)

경 유

수 신 분 회 장

참 조 사무국장

선 결			지 시		
접	일자	. .	결		
	시간	:	재		
수	번호		.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회원투표 관련 안내

1. 한의학 발전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중선위 제160호 (2017. 10. 2.)

3. 대한한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9.30.일에 대한한 의사협회장이 사퇴서를 제출(2017.12.11.일자 사퇴)함에 따라 긴급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회원투표를 공고된 일정에 따라 변경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내용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하여 9.30일에 AKOM에 공지하였습니다. 더불어 10.1일과 10.2일에 전회원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하였으나 협회장의 거부로 인해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5. 2017.10.1.일에 협회장이 선관위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문자를 2건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서 제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문자 2회, 대의원측과 회원측의 반박(패널티)문자 각 2회씩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이것도 협회장에 의해 거부되었다 하오니 회원투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 부 : 1. 대의원총회 의장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 담화문 1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협회장에게 보낸 공문 1부.
3. 협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첨부 1]

협회장 사퇴서 제출에 대한 담화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진료에 종사하시는 회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의원총회와 5,902명의 회원이 김필건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를 요구함에 따라, 이미 공고된 것과 같이 회원투표가 10월 10일 우편투표지 발송을 시작으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9.30일자로 “12월 11일부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김필건 회장의 사퇴서가 사무처를 경유하여 의장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정관에 회장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오늘 받은 협회장의 사퇴서는 일종의 기한부 사직 예고와 같이 12월 11일부로 사퇴한다는 것이어서, 사직의 효력이 오늘부터인지 아니면 12월 11일부터인지 등 진행 중인 회원투표 처리에 대하여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퇴서 접수일인 9.30일 18:30분에 긴급히 의장단회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투표 요구자 양측과 사퇴서를 보낸 협회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하여, 협회장 사직서의 진의를 직접 확인하고 협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라는 협회 역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해소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퇴서를 제출한 협회장이 불참하고, 김대근 부회장을 통하여 협회장의 진의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해임은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명직 임원 전원이 해임되는 것이며, 사퇴의 경우 김필건 회장 한 명만 사퇴하게 되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투표 요구자 측에서도 회원투표 요구를 취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며, 정관 및 규칙에도 회원투표를 임의로 중단시킬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김필건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는 공고된 일정에 따라 변경이 없이 진행하게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회원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9.30.

대의원총회 의장 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배상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시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 신 대한한의사협회장

(경유)

제 목 회원투표 관련 유감표명

1.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7.9.30일 제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여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10.1일과 10.2일에 전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하지만 10.1일에 발송되었어야 할 담화문 전회원 문자가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의해 문자발송이 거부되었습니다.

4. 본 선거위원의 문자는 발송을 거부한 반면 금일(10.1일) 11:30분경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보내는 전회원 문자가 2건이 발송되었습니다. 협회장이 발송한 이 문자에 대해 제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문자 2회, 대의원총회측, 회원측의 패널티 문자 각 2회씩을 발송하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거부하였습니다.

5. 회원투표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투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회원에게 담화문을 공지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회원투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2017.9.26~9.29일까지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하여 공고한 사항을 위반하고 10.1일에 문자를 발송한 행위, 지난 9.26일에도 선거위원 승인없이 문자를 발송하여 1차, 2차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또다시 위반한 행위 등은 모두 정관과 선거및선거관리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6.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끝.

선관위 사무국 전화 02-2657-5066, 5050 전송 02-2657-5005 / vvkoma73@daum.net / 공개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시다.

대한한의학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경유)

제 목 회원투표 관련 유감표명에 대한 회신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먼저 중선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 해임추진위원회가 전회원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음. 임의로 회원의 신상정보를 입수하여 유인물을 발송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 중선위가 어떠한 논의를 하였는지 및 이러한 행위를 한 해임추진위원회에 대한 중선위의 입장
3. 중선위 제159호(2017.10.1)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4. 회원투표가 진행중이지만 김필건 협회장은 현재 직무정지중인 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회무수행을 하고 있는 회원의 직접 의사에 의해 선출된 현직 협회장이므로 회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회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회무관련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과거에도 해왔던 방법이 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5. 회원투표를 빌미로 회장의 고유 직무행위인 대회원 보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정관과 제규칙에 근거가 없으며, 중선위의 업무범위도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호를 통한 유감표명과 강고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대상을 적시하여 2017.10.2(월) 15시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그 어느기구보다 공정해야할 중선위에서 다수의 지부장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며, 이 사항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8. 공정한 회원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서울지부 회원에게 발송된 문자 샘플 1부, 끝.

대한한의사협회



담당자 부장 윤태호

협조자

대한의-2017-10-0001 2017.10.1.

우 07525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영동 26-27)

/ www.wkom.org

총무국

전화 02-2657-5000

전송 02-2657-5005

/ wkoma73@daum.net

/ 공개

<문자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서울시한의사회장 홍주의입니다.

그간 한의계의 인권 퇴보와 각종 정책의 실패에 따른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협회 집행부 구성을 위해, 김필건집행부 퇴진에 지난 기간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장서서 노력하였습니다.

김필건회장 해임투표가 회원과 총회를 통해 발의되었고, 해임투표 공고가 공지되어 시작되었고, 10월10일부터 해임투표가 기표예정인 가운데, 오늘 김필건 협회장의 기한조건부 사표가 대의원총회의장에게 접수되어, 또다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현 집행부의 각종정책 실패와 부도덕함, 불투명성을 심판하고자 한것입니다.

김필건회장 개인을 탓하고자 하는것이 아니었음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12월 11일 기한 조건부 사퇴서에는 회장 개인의 사퇴만 명기되고, 이하 모든 집행부는 그대로 존치되는 모순국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관규정도 없는 기한조건부사퇴에 대한 투표중지의 효력 및 이후 회원여러분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집행부 운영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권력 연장에 눈이멀어 편법을 일삼는 현 김필건 집행부에게 합리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목전에 있는 회원투표의 진행여부 등을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번 42대 김필건회장 집행부가 변명과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어온 관계로, 많은 회원 여러분의 불필요한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의 이와같은 질책과 감시가 있었기에 지금의 상황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원의 뜻을 존중하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회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댁내에 평안과 한의계의 경상화를 빌어 소원해 봅니다,

한의계의 의권이 경상화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9월30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홍주의 올림